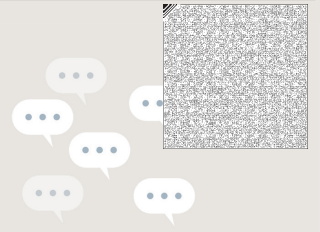




# 주보를 통한 어린이 신앙교육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한 변화는 전례를 집전할 때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특히 미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사 때 사용되는 말과 표징들은 어린이들의 수용 능력에 맞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유아기와 어린 시절의 종교 체험에서 일생을 지배하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973년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육이 늦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례를 설명하고, 독서를 봉독하게 하는 등 전례에 참여시키고 어린이들만을 위해 특별한 해설이나 강론을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78년 서울주보 1호가 나온 이후에 거의 빠지지 않고 게재되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코너’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린이나 청년을 위한 주보는 따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주보 1호에 게재된 청개구리란 제목의 글입니다.

“청개구리가 나무에 앉아서 운다. 내가 큰 돌로 나무를 때리니 뒷다리 두 개를 펴고 발발 떨어졌다. 얼마나 아파서 저럴까? 나는 죄 될까 봐 하늘 보고 절을 했다. 이것은 어느 산골학교 3학년의 글이다. 이 짓곳은 개구쟁이는 주일학교에서 생명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애처로운 개구리를 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빈다. 개구리보다 귀한 사람이 만약 고통을 받는다면 죽 아파서, 배가 고파서, 부모를 잃고 외로워서 발발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 어린이는 어떻게 할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걸 뭐” 하고 불쌍한 마음도 없이 외면한다면...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자기만 잘난 척 깨끗한 척하면서도 마음이 싸늘한 바리사이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다.”

✿ 어린이 코너 ✿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나무에 앉아서 운다. 내가 큰 돌로 나무를 때리니 뒷다리 두 개를 펴고 발발 떨어졌다. 얼마나 아파서 저럴까? 나는 죄 될까 봐 하늘 보고 절을 하였다. 이것은 어떤 산골학교 3학년 어린이의 글이다. 이 짓곳은 개구쟁이는 주일학교에서 생명이 하느님이 만드신 귀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애처로운 개구리를 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빈다.

다. 개구리 보다 더 귀한 사람이 만약 고통을 받는다면, 죽 아파서, 배가 고파서, 부모를 잃고 외로워서 발발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 어린이는 어떻게 할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걸 뭐”하고 불쌍한 마음도 없이 외면한다면...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자기만 잘난 척, 깨끗한 척 하면서도 마음이 싸늘한 바리사이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다.

이후 주보에는 계속 어린이 코너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면 뒷

부분의 바리사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이 독자들이 잘 이해했을까?’ 그건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은 자신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른들에게 ‘바리사이가 뭐야?’라고 질문을 했겠죠. 어쨌든 당시 서울주보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70년대의 초등학교 아침 조회 모습

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때 배운 간단한 교리 내용이 수십 년이 지

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합니다. 신부님과 함께 아이들이 성당 마당에서 뛰어놀았던 일, 부활절 날 부활달걀을 받고 기뻐하던 일, 크리스마스 때 준비한 합창제 등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임과 동시에 신앙의 밑거름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때 믿음의 기초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주보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사실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